

전략 코멘트

버블 걱정? 투자심리가 버티고 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Analyst
강대승

ds_kang92@sk.com.kr
3773-9122

AI 버블 우려 속, 개인 투자자 심리가 시장을 지탱

AI 버블 우려는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것이다. AI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버블 우려가 불거지며 최근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9월 23일 자료(AI 고점, Not There Yet)에서 언급했듯, Builder AI의 파산, MIT 설문조사 결과 등을 참고했을 때 버블 우려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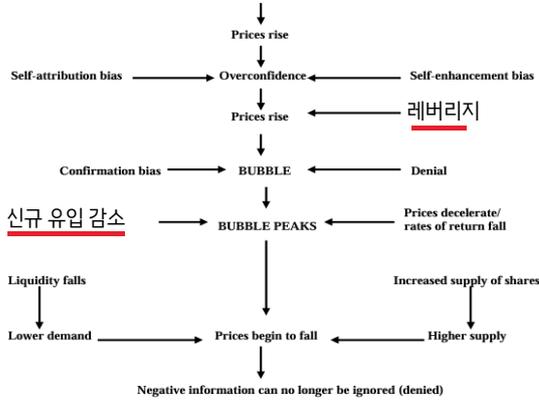
버블 우려 속 시장 상승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금 주의 깊게 볼 지표 중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 변화 여부다. 닷컴버블, 2015년 중국 주식시장 상승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 유지로 인한 신규 고객·레버리지 자금 유입이다.

미국,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사 신용대출 잔액(Margin Debt)은 8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로빈후드의 월간 고객 증가, 주식 거래량도 올해 4월 이후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유사한 모습이 관찰된다. 9월 26일 AI 버블 우려, 한·미 협정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지만 신용계좌 잔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개인의 신규 CMA 계좌 수도 월간 증가하는 중이다. 레버리지 투자, 신규 투자자 유입이 나타나는 지금 버블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다만 위험 요인도 존재한다. 현재 상승분의 일부가 심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심리는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 4월 상호관세 부과 당시에도 분위기가 하루 만에 급격히 변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연휴 동안 미국 섀도우나 침체 수준의 고용 지표 발표 등과 같은 돌발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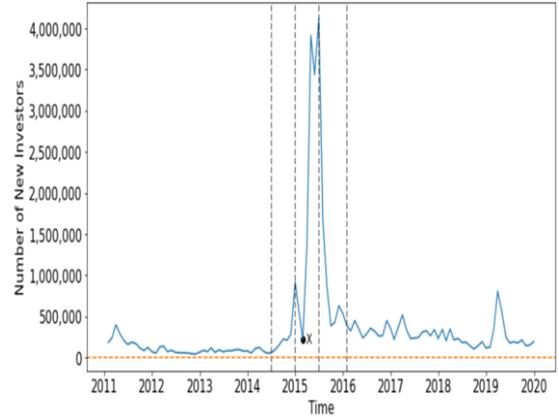
따라서 연휴 이후에 포지션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장은 당분간 견조할 가능성이 크지만, AI 관련 투자 확대는 연휴가 끝난 뒤 투자심리의 방향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편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다.

닷컴 버블 행동 모델 중 버블 형성 및 피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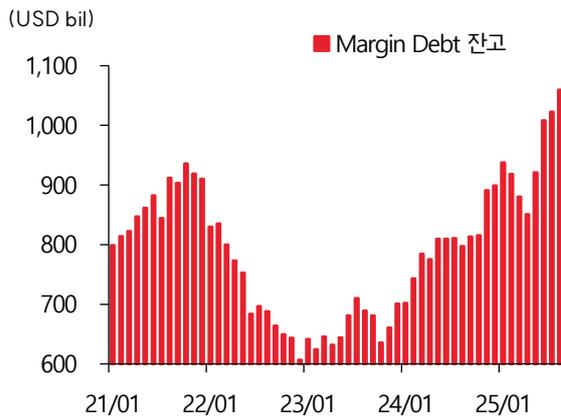
자료: A behavioral model of the dot.com bubble and crash, SK 증권

중국 주식시장에 유입된 신규 개인 투자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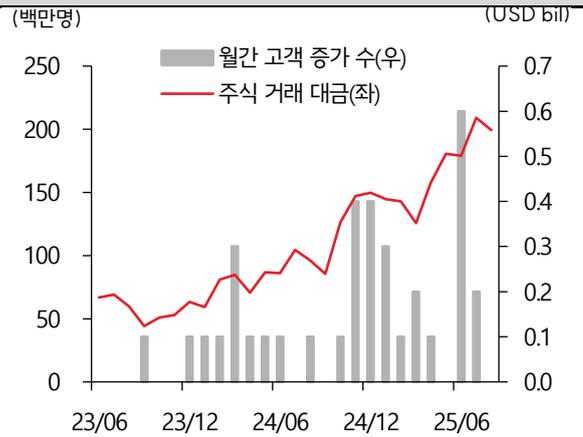
자료: What Drives Stock Prices in a Bubble?, SK 증권
주: X는 2015년 초 신용거래 규제 했을 당시

미국 Margin Debt 금액 사상 최고치 기록



자료: Finra, SK 증권

로빈후드 고객, 거래대금 증가세 4월 이후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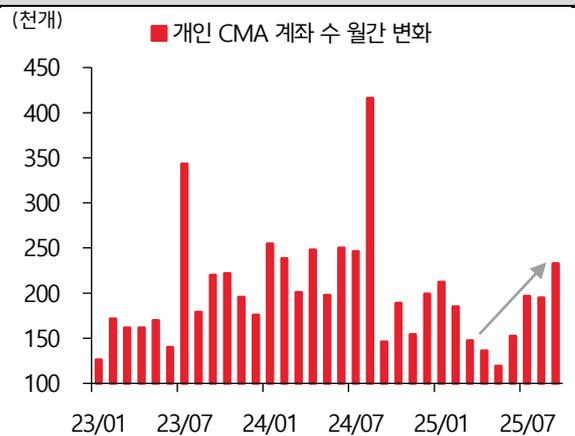
자료: Robinhood, SK 증권

한국 신용거래용자 잔고 상승 지속



자료: 금융투자협회, SK 증권

한국 개인들의 CMA 계좌 수 증가 중



자료: 금융투자협회, SK 증권

Compliance Notice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